



##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 날씨에 대해 이야기 하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모란 벤자민 영국출신)
- 중국 관광 시리즈~베이징 편~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쉬 퀘이 중국출신)

## 02 지사의 움직임

- 가고시마공항 국제화촉진협회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5 월 14 일)
- 주일 인도 대사관을 예방하였습니다.(5 월 18 일)
- 2026 년 혼바 츠무기 쿤 2 명이 방문하였습니다.(5 월 25 일)

##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 셋페토베 (6 월 7 일)
- 아이라시 가지키초 거미 싸움 대회 (6 월 21 일)
- 💡 Coming UP! 【2026 년 7 월, 8 월 이벤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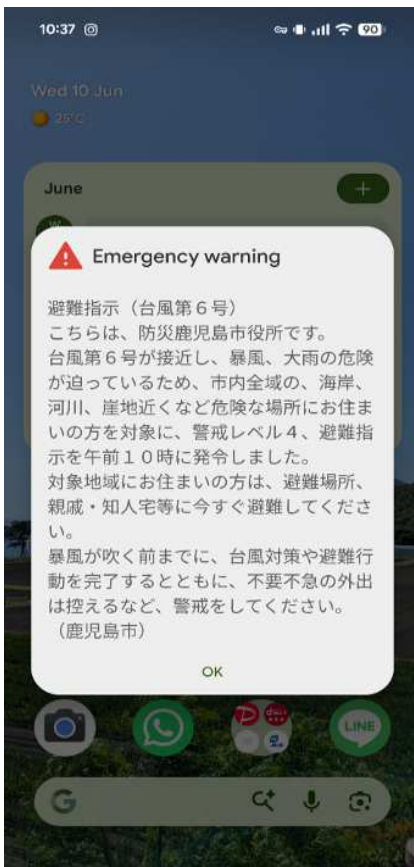
##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 ○날씨에 대해 이야기 하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모란 벤자민 영국출신)

가고시마는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던중 동료가 갑자기 저에게 “영국인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향한 약간의 빈정거림일 수도 있지만, 이 기사의 주제에 대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용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은 일상적으로 날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대화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대화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영국의 직장인이 출근했을 때 전형적인 대화입니다.

A : 좋은 아침입니다.

B : 좋은 아침!

A :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바람이 세네요/ 비가 오네요/ 덥네요/ 춥네요

B : 그렇네요. 얼마 전에 빨래를 베란다에 내놨는데,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금방 말랐어요./얼어버렸어요./날아갔어요.

주로 이런식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대화를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그 빈도가 잦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날씨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날씨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와 태풍이 있는 일본은 날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위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날씨는 영국보다 변화무쌍하지만 제 주변에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익숙해져 있는 걸 수도 있고 저와의 대화에 질린 걸 수도 있겠지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단순히 기본적인 대화 습관의 차이 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사람이 대화에서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은 4 초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일본은 약 8.2 초까지 침묵을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침묵에 대한 태도와 무리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하는 경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의 영국 풍경

이 칼럼에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침묵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해서든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대화하시는 분은 이런 귀찮음을 “국제교류”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

## ○중국 관광 시리즈 ~베이징 편~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쉬 웨이 중국출신)

베이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대 궁전인 자금성인가요?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호한(好漢)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만리장성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

들에게 사랑받는 베이징덕인가요? 베이징에서 6 년동안 생활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이고 신비로운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 -여행성지

### ① 고궁(자금성)

1420 년, 명 성조 주체가 이 황궁을 건설한 이래 총 24 명의 황제가 이곳에 거주하며 정무를 보며 500 년이상의 중국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베이징의 가장 중심에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문 광장을 빠져나가면 보이는 이곳은 베이징 관광에서 빼수 없는 관광 스팟입니다. 고궁 주변에는 고대 의상을 렌탈할 수 있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황제나 황후의 의상을 입고 황족의 생활을 체험해보세요!



▲자금성

### ② 만리장성



▲만리장성

기원전 7 세기, 춘추전국시대 각 제국은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벽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각국의 기존 성벽을 연결, 수선하여 처음으로 연속적인 장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방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변경의 관리강화에도 기여하여 중화민족 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③ 싼리툰

베이징에는 역사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팟도 많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제일 트렌디한 공간인 싼리툰에는 다양한 바와 쇼핑몰이 모여있으며 중국 최초의 복합형 유니클로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도 있습니다. 트렌디한 베이징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싼리툰을 방문해보세요!



▲싼리툰

## 추천 음식

### ① 베이징덕



▲베이징덕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요리인 베이징덕은 베이징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던 요리였지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급 서비스와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전취덕”을, 가성비를 중시하신다면 “자광원”을 추천드립니다.

### ② 자장면, 더우즈

예로부터 베이징의 서민들이 즐겨먹던 간식으로, 매일 아침 더우즈와 자우취안을 먹고, 점심에는 자장면을 먹는 것은 행복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우즈는 콩을 발효해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큼한 냄새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꺼리기도 합니다. 만약 베이징에서 하루를 보내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장면, 더우즈

## 02 지사의 움직임

### ○가고시마공항 국제화촉진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5월 14일)

가고시마공항 국제화촉진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수지결산의 보고와 2026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의 심의를 하였으며, 모든 의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가고시마공항의 국제 정기노선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취항했던 4개의 노선이 모두 재개되었지만, 현재 홍콩선, 상하이선은 운휴중입니다.

올해년도부터 단체여행 조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새롭게 SNS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가고시마공항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회의 모습

### ○주일인도대사관을 예방하였습니다.(5월 18일)

인도의 나그마 모하메드 말릭 주일인도대사를 예방하였습니다. 말릭 대사는 가고시마현산품의 인도 수출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으며 앞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와 인도 인재의 수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지금까지 가고시마현의 교류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가며 관계를 계속, 발전해가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그마 모하메드 말릭대사와 기념촬영



▲나그마 모하메드 말릭대사와 의견교환을 하는 모습

## ○2026년 혼바 츠무기 퀸 2명이 방문하였습니다.(5월 25일)

2026년 혼바 츠무기 퀸으로 새롭게 선발된 고리야마 니카씨와 미야시타 치유리씨가 현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고리야마씨는 모국을 이미지한 푸른색이 들어간 오시마를, 미야시타씨는 우아한 흰색 오시마를 착용하고 오시마츠무기의 매력을 어필해주셨습니다.

고리야마씨는 모국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징검다리가 되어 전통적인 오시마츠무기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어강사인 미야시타씨는 외국어능력을 활용하여 PR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분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리야마 니카씨, 미야시타 치유리씨와 기념촬영

###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 ○셋페토베 (6 월 7 일)

「셋페토베」는 약 420년전부터 히요시 지역에 전해져 오는 모내기 축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밭의 가운데에 원을 만들어 어깨동무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날뛰는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밭을 밟으며 땅을 고르게 하고 해충을 밟아 없애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진흙을 잔뜩 묻히며 이번 한해의 풍작을 기원합니다. 축제 당일에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회가 행렬에 참가하는 등 마을은 하루종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셋페토베」는 「있는 힘껏 뛰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셋페토베의 모습「© K. P. V. B」

#### ○아이라시 가지키초 거미 싸움대회 (6 월 21 일)

세키가하라의 적중돌파로 이름이 알려진 시마즈 요시히로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참가하여 그 군대의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호랑거미(암컷)을 모아 싸우게한 것이 시작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현재는 1991년 8월에 설립된 「거미싸움보존회」의 주최로 매년 6월 3번째 일요일에 개최되어 해외에서 취재하러 올 정도로 큰 주목을 받는 대회입니다.

대회 당일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약 1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넘치는 열정

으로 지역에서도 소중히 전승하고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행사입니다.



▲거미 싸움의 모습「© K. P. V. B」

### 📣 Coming UP ! 【2026 년 7 월, 8 월 이벤트 정보】

#### ◇7 월

- 18 일~19 일 2026 기리시마 고쿠부 여름 축제
- 24 일~8 월 9 일 제 76 회 기리시마 국제음악제 2026
- 25 일 제 27 회 치란 네부타축제

#### ◇8 월

- 1 일 2026 가노야 여름 축제(가노야시)
- 11 일 가이몬 여름축제(이부스키시)
- 16 일 센다이강 불꽃축제(사츠마센다이시)
- 20 일 가고시마 긴코만 섬머 나이트 불꽃축제(가고시마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 편집 후기 (가고시마현 종합정책부 국제전략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

여러분은 6월의 “수국”을 외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국제전략과의 국제교류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어로는 “Hydrangea”, 중국어로는 “绣球花(시우 초우 후와), 한국어로는 “수국”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수국의 다른 외국어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참고로 수국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하며 “칠변화”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질 때문에 수국은 변하기 쉬움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어진 인생의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자, 등의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인용:국토교통성 관광청 지역관광 자원과 다언어해설문 데이터베이스)

7월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힘냅시다. 점점 더운 날이 늘어나니 온열질병에도 주의해주세요.

그럼 다음호도 기대해주세요☆彡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그외에도 전세계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종합정책부 국제전략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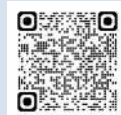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minami@pref.kagoshima.lg.jp](mailto:minami@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가고시마 관광사이트



<https://www.kagoshima-kankou.com/>

※ 이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